

# 청년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내적 통제소재가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김수현<sup>1</sup>, 유봉호<sup>2\*</sup>

<sup>1</sup>중소기업 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sup>2</sup>단국대학교 공과대학

## An Effects of Youth Founder's Entrepreneurship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on Possibility of Start-up Success

Soo-Hyun Kim<sup>1</sup> and Bong-Ho Yoo<sup>2\*</sup>

<sup>1</sup>Youth Founder Academy,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sup>2</sup>Engineering College, Dankook University

**요약**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심리특성은 창업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는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심리특성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설립·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지 122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자의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율성으로 구성된 기업가정신과 심리 특성인 내적 통제소재가 모두 창업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첫째, 창업성공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업을 구상하는 예비창업자들은 자신의 기업가정신을 가름해 보고 의사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청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창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창업 보육기관들은 '기업가정신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가정신이나 심리적 특성은 유·소아기 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가정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만 한다. 넷째, 창업자 스스로도 기업가정신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창업자의 내적 통제소재를 강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창업자 자신은 물론 창업 보육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Abstract** Entrepreneurship of a founder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re very important factors for the start-up succes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like this, this study investigated effect relationships of the entrepreneurship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the start-up success. For this, 122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empirically analyzed for the youth entrepreneurs who entered the youth founder academy which is founded and manag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According to results of analysis, both the entrepreneurship consisting of proactiveness, risk taking and autonomy, and the internal locus of control,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start-up succes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 below,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ly, we must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entrepreneurship from the perspective of a successful establishment, and, prospective entrepreneurs, who are planning to the start-up, have to judge their entrepreneurship and, only then, make a decision. Secondly, we have to put our best efforts into developing more effective education on start-up, which deals with improving youth founder's entrepreneurship. Therefore, education institutions for start-up are needed in order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such as "Entrepreneurship Training Programs". Thirdly, we must recognize that the role of family is important because most entrepreneurship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re formed in a person's childhood. Forth, the entrepreneur, themselves, must realize that they has to make an effort to improve their entrepreneurship. Lastly, youth founder's internal locus of control has to be enhanced. Thus, greater attention is required from both the entrepreneur themselv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start-up.

**Key Words** : Autonomy, Entrepreneurship, Internal Locus of Control, Proactiveness, Risk Taking

\*Corresponding Author : Bong-Ho Yoo(Dankook University)

Tel: +82-31-8005-3464 email: [bongho@dankook.ac.kr](mailto:bongho@dankook.ac.kr)

Received February 19, 2013

Revised (1st April 17, 2013, 2nd May 13, 2013)

Accepted June 7, 2013

## 1. 서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기업가정신은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다. 얼마나 많은 기업을 창업하고,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 경제력이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하여 실업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실업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창업이란 '새로운 기업을 창조하는 일'로서, 기회를 인식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투입하고 가치를 창출하고자,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과정이다[1]. 기업가정신 연구는 원래 '무슨 사업으로 진입해야 하는가?'와 같은 시장진입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2]. 결국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창업(start-up)은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3], 기업가정신을 창업자정신으로도 표현한다.

'창업자 없이는 창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Morris (1998)의 주장과 같이, 창업의 성·패는 창업자의 역할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창업자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특성이나 심리특성과 같은 창업자의 개인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관련 연구만으로는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가름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7]. 이와 같은 관점에서, 행동이 기업가를 가름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제안[8]에 따라, 창업이 곧 기업가정신으로 정의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주장[3]이 나왔다.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본 연구는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동안 창업을 초점으로 한 기업가정신이 연구되어 왔으나, 주로 창업의지와와의 연관성[11] [13]을 살펴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가정신과 창업성공과의 관련성을 고찰한 연구들도 행동이 아닌 심리적 특성변수 차원에서 위험감수성[6] [19,58,59]과 같은 단일 개념의 기업가정신을 살펴 본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동적 특성변수 차원에서 혁신성·진취성·위험감수성과 같은 다차원적 개념의 기업가정신을 살펴 본 연구[14]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히 미미한 현실이다. 특히 자율성을 구성개념으로 한 기업가정신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15]. 자율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방식대로 하고자하는 욕구가 강하다. 때문에 타인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는 임금 근로자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자기 사업, 즉 창업을 선호하기 마련이다[44]. 결국 자율성은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독립정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을 구성개념으로 한 기업

가정신에 관한 연구는 보기 드물다[15].

대부분의 기업가정신 연구는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정신과 혁신성을 달리 보는 견해도 있다. 왜냐하면 혁신성은 신제품 개발을 중시하는 조직에서 볼 수 있지만[24], 기업가정신은 신 시장 진출 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5] 혁신성과 기업가정신을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26]. 뿐만 아니라, 혁신성은 창업의 결정요인과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13]도 있다. 결국 기업가정신과 혁신성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이다[27]. 반면에 진취성은 창업자의 자세 및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11], 위험감수성은 창업자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주목받고 있다[17].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을 진취성(proactiveness), 위험감수성(risk taking), 자율성(autonomy)으로 구성하여, 심리적 특성의 단일 개념이 아닌 행동적 특성의 다차원적 개념으로 고찰하였다. 이와 같이 혁신성 대신 자율성이 내포된 기업가정신을 살펴본다는 점이 본 연구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창업에 있어서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필수불가결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창업자의 배경적·심리적 특성만을 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창업성공을 위해서는 창업자 개인특성만으로는 불충분하다 [55]. 예컨대, 내적 통제소재는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창업자 심리특성 중의 하나로서[18], 기업가정신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55]. 이와 같은 주장에 따라, 내적 통제소재는 더욱 폭 넓게 연구되어야 할 창업자의 개인특성으로 주목 받고 있다[16].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내적 통제소재(internal locus of control)를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그리고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창업자 심리특성 중의 하나인 내적 통제소재와의 조합으로 새로운 연구의 틀을 도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동안 기업가정신과 내적 통제소재에 대한 연구는 각각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자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 청년창업자에 대한 연구는 다소 있으나, 창업보육기관에 입교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문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 하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신개념 창업보육기관인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한 1기 청년창업자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하는 본 연구

의 목적에 부합되는 표본이다. 왜냐하면 ‘기업가정신 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업가정신 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한 청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살펴 보았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특성에 따른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창업보육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청년창업사관학교

#### 2.1.1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취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제품개발보다는 인재양성에 중점을 둔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친편익률적인 하드웨어 및 사업지원 중심의 기존 창업보육 개념을 과감히 탈피하여 역량 있는 창업자 육성을 위한 ‘기업가정신 훈련 프로그램’과 향후 사업능력 배가를 위한 ‘제휴기업 프로그램(affiliate programs)’ 등 소프트웨어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개념 창업보육을 목적으로 한다[19].

#### 2.1.2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방식

1단계는 사업 준비단계(3개월)로서, 기술력 있는 청년창업자들의 제품개발 및 시장진입 단계(창업 실행기)를 중점 지원한다. 창업교육과 코칭을 통해 시장지향적인 기술 및 제품개발을 이끌어 낸다. 2단계는 개발단계(3-6개월)로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한다. 3단계는 졸업 준비단계(3개월)로서, 시험생산과 홍보·마케팅, 자금조달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완성시킨다.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지원해 준다. 이때 각 단계별로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를 거쳐 창업수행능력 미달자는 탈락시키는 반면, 우수자는 1년 동안 최대 1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해 준다. 이와 같은 철저한 운영방식을 통하여 창업자의 경쟁력은 물론 사업의지를 강화시키하고자 한다[19].

### 2.2 기업가정신

Schumpeter(1934)는 기업가정신이란 지속적인 창조적 파괴라고 강조하였다. 불확실성 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모험정신뿐만 아니라, 기업가의 능력 등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또한 기업가정신의 용어도 일관성이 없으며[21], 많은 학자들은 기업가정신과 기업

가지향성을 동일한 의미로 간주한다[22]. 기업가지향성은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Miller(1983)의 주장에 따라, 여러 연구자가 동의하였다. 이에 더하여 또 다른 연구자들[15]은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경쟁적극성, 자율성으로 다섯 가지 구성개념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본 연구는 기업가지향성이 아닌 창업과 좀 더 밀접한 성격을 띠는 기업가정신으로 표현하고,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율성을 구성개념으로 선정하였다.

#### 2.2.1 진취성

기업가적 사고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발 빠른 행동을 취하게 한다. 상황적 제약을 받지 않고 환경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진취성이다. 진취적인 사람은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변화 지향적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행동하며 인내한다[28]. 다시 말해서, 외부환경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고자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앞서 나가려 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문제 발생을 예견하여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29]. 이처럼 낙관적인 사고로 미래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고자 한다[30].

진취성은 또한 진취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기회를 예견하고, 남보다 먼저 신흥 시장에 진입하여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성향이다[15]. 즉 환경변화를 감지하고 시장기회 포착을 위해 진보적인 시각으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31].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진취성과 창업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28].

#### 2.2.2 위험감수성

창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적 위험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실패로 인한 자신감 상실과 심리적 압박감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기꺼이 수용하고자 하는 개인적 성향이 바로 위험감수성이다[33]. 기업가지향성의 초기 연구에서 정의된 위험감수성은 이미 계산된 사업상의 위험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자세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예상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위험성을 감수하고 신사업 또는 신제품 등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정의되었다[34]. 그러나 후속 연구들은 더욱 강한 기업가적 위험감수성을 강조하였다[35].

위험감수성은 잘 모르는 새로운 시장의 진입이나,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거나 과중한 차입을 하는 등 대담한 행동을 하는 성향이다. 즉 위험감수성은 사업성고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거나[36], 실패

로 인한 손실이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성향을 말한다[37].

이와 같이 창업자들은 아무도 경험하지 않고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모험적인 사업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40].

### 2.2.3 자율성

자율성이란 자율적, 자치적, 독립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상태이며,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목적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행동이나 심리적 수준으로 표현된다[41]. 자율성은 조직의 관료주의를 탈피하여 독립적인 마인드로 개인이나 팀의 비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기업가적 독립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율성은 독립욕구가 강한 개인적 성향이다[42].

새로운 진입활동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자율성은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독립정신이다. 자율성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정해진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고 스스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15]. 때문에 조직의 규정과 상사로부터 탈피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43],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44]. 그러므로 자율성이 강한 사람은 타인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는 임금 근로자 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자기 사업, 즉 창업을 선호하게 마련이다.

### 2.2.4 내적 통제소재

통제소재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자신의 행동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내적 통제소재와 모든 일은 자신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된다고 생각하는 외적 통제소재로 구분된다. 내적 통제소재가 강한 사람은 업무에 대한 긴장감을 잘 해소시키며, 자신의 활동에 더욱 만족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로 변화에 편승할 수 있다[47].

내적 통제소재는 창업에 따르는 위험감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45].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을 수반하는 창업은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외적 통제소재보다 내적 통제소재를 가진 사람이 더욱 유리할 것이다[46]. 왜냐하면, 내적 통제소재가 강한 사람은 행운이나 운명 또는 영향력 있는 타인에 의해 끌려 다니지 않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47].

내적 통제소재가 강한 사람은 정보 수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창업이야말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풍부한 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환경을 잘 통제할 수 있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48].

### 2.2.5 창업성공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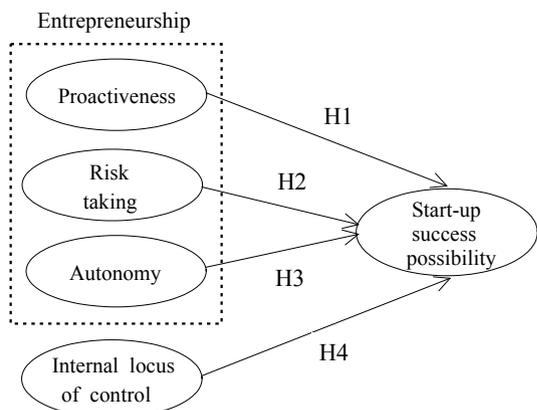
창업성공 여부를 가름하기 위하여 연구자들 나름대로 다양한 측정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창업 초기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으로는 매출액이나 수익률 등의 객관적 성과를 측정하기도 하지만, 기대달성 여부, 종업원·고객 만족과 같은 주관적 성과를 측정하기도 한다[49].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을 성공기준으로 삼기도 한다[50]. 뿐만 아니라, 재무성과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혁신 및 학습, 프로세스, 고객만족과 같은 주관적 성과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51]. 이와 같은 주장들은 실무적·학문적으로도 지지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객관적 또는 주관적 성과로 평가하거나, 두 가지 성과를 모두 평가하기도 한다. 신생기업이 아닌 기존 기업의 경우도 상장 기업이 아니면 객관적인 재무제표가 흔치 않기 때문에 최고경영자의 주관적 예측결과로 성과를 측정해야만 한다. 다행히도 이와 같은 예측이 향후 실적과 대체로 일치한다[52].

창업 초기는 매출액, 수익률, ROI, 시장점유율 등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객관적 성과로 측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창업성공가능성의 평가를 창업자가 자각하는 주관적 예측결과로 측정하고자 한다.

## 3. 연구 설계

### 3.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앞 절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의 구성개념인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율성 및 심리 특성인 내적 통제소재와 창업성공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 보고자, [Fig. 1]과 같이 본 연구를 설계하였다.

### 3.2 연구가설

#### 3.2.1 진취성과 창업성공과의 관계

진취성은 새로운 기회를 확인하고 평가하며, 새로운 벤처 팀을 구축하는 등, 창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53]. 이처럼 진취성은 창업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비전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의 특성으로[53], 창업과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졌다[28]. 전문경영인의 진취성은 수익성과와는 무관하지만, 창업자의 진취성은 매출성고를 높여 준다 [28]. 창업자의 진취성은 이와 같은 객관적 성과[54]는 물론 객관적·주관적 성과를 모두 높여 준다는 주장[14]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청년창업자의 진취성은 창업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2 위험감수성과 창업성공과의 관계

창업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리스크가 크 기 때문에 창업자의 위험감수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창업자의 위험감수성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56]도 있지만, 저성장보다 고성장 기업의 창업자가 좀 더 위험감수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57]도 있다. 또한 몇몇 연구[14,58,59]는 창업자의 위험감수 성과 창업성공의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청년창업자의 위험감수성은 창업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3 자율성과 창업성공과의 관계

자율성은 창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으로 [48], 전문 경영인보다 창업자의 자율성이 훨씬 강한 편이다[60]. 자율적 팀은 창업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58]도 있지만, 창업자의 자율성은 창업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61]도 있다. 이와 같이 혼재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자율성은 혁신을 추구하고 창업을 장려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15]. 자율성은 또한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행동으로 기업가적 독립성[42]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본 연구는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고찰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청년창업자의 자율성은 창업성공에 정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4 내적 통제소재와 창업성공과의 관계

창업자의 능력과 자신감은 적극적인 자세와 진취적인 행동을 유발시킴으로써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창업자의 내적 통제소재와 창업성공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일관성 있게 보이지만 않는다. 왜냐하면, 창업은 불확실한 환경으로 인한 실패의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이다[46]. 따라서 창업자의 내적 통제소재는 재무적 성과는 높여주지만, 비재무적 성과는 높여주지 못한다는 연구[5]도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창업성공은 창업자의 내적 통제소재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46]. 이와 같이 창업자의 내적 통제소재는 창업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 상기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청년창업자의 내적 통제소재는 창업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측정항목 대부분은 선행연구와 동일하지만, 일부는 본 연구의 성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적용하였다. 기업특성과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Likert 5점으로 측정하였다.

진취성은 Becherer and Maurer(1999)와 Lumpkin and Dess(1996)의 연구를 기초로, 진취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기회를 예견하고, 남보다 먼저 신흥시장에 진입하여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나는 기회를 감지하는 창의성과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목표시장의 전망을 밝게 보고 진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편이다’, ‘나는 현재의 문제보다 오히려 미래의 기회를 먼저 생각하는 성향이다’, ‘나는 시장의 변화가 긍정적인 사업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와 같이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위험감수성은 Naman and Slevin(1993)과 Lumpkin and Dess(1996)의 연구를 기초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자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원을 투자하거나 대담한 행동을 하려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나는 다소 위험이 따르더라도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좋아 한다’, ‘나는 불확실하지만 사업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나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 보다, 위험이 다소 크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호 한다’, ‘나는 위험성은 있지만 과감하고 용감한 행동이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 한다’와 같이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자율성은 Spreitzer(1995)와 Lumpkin and Dess(1996)

의 연구를 기초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정해진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고 스스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독립심이 강한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나는 업무수행 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업무수행 시 자율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하는 편이다’,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와 같이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내적 통제소재는 Spector(1988)의 연구를 기초로,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자신의 행동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문항은 ‘나는 사업성공은 운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누구나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나에게 일어났던 좋고 나쁜 일들은 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 한다’와 같이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창업성공은 본 연구의 표본이 창업 초기 기업인 관계로 객관적 성과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Greenley and Foxall(1988)의 연구를 기초로, 창업자가 인지하는 주관적 성과와 예측결과로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은 ‘나는 현재까지의 우리 회사 창업성공에 대해 만족 한다’, ‘나는 우리 회사의 우수한 아이템으로 인해 향후 전반적인 성과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 한다’, ‘나는 우리 회사의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 한다’, ‘나는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갈수록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다’, ‘나는 우리 회사의 수익성이 갈수록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다’, ‘나는 우리 회사의 신규채용이 갈수록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다’와 같이 6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 4. 실증분석

### 4.1 연구의 표본

#### 4.1.1 표본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표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신개념 창업보육기관인 청년창업사관학교 1기 졸업예정자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정확성과 회수율을 높이고자 직접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122부를 회수하여 이를 통계 처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였다.

#### 4.1.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표본특성 [Table 1]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성별은 남자(93%)가 우세하며, 연령은 20-30대(77%)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학력은 대졸 이상(88%)이 대부분이다. 업종은 제조업(71%)이 많으며, 소재지는 수도권(86%)에 집중되어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13	92.6
	Female	9	7.4
Average Age	20	16	13.1
	30	78	63.9
	40	28	2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5	12.3
	University	72	59
	Graduate School	35	28.7
Industry	Manufacturing	87	71.3
	Service	28	23
	Others	7	5.7
Area	Seoul, Gyeonggi, Incheon	105	86.1
	Others	17	13.9

### 4.1.3 표본의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측정변수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설문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모든 척도들의 Cronbach's  $\alpha$  값이 0.80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Table 2] Reliability Results of Variables

Variables	Items	Cronbach's $\alpha$
Proactiveness	4	.876
Risk Taking	4	.838
Autonomy	4	.854
Internal Locus of Control	3	.800
Perceived Start-up Success	6	.895

### 4.1.4 표본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측정변수별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주성분 분석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직각회전 방식인 varimax방식을 이용하였다. 고유치 값 기준은 1이상, 요인 적재 값 기준은 0.5이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Table 3]과 같이, 예상대로 다섯 개의 요인으로 묶여 구성개념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Table 3] Factor Analysis Results of Variables

Variables	Items	Loading	Cummunality	Eigen Value	Variance	Cum. Variance
Proactiveness	PA 1	.651	.678	6.017	25.824	25.824
	PA 2	.782	.752			
	PA 3	.822	.717			
	PA 4	.867	.830			
Risk Taking	RT 1	.708	.733	1.637	24.209	50.032
	RT 2	.815	.761			
	RT 3	.811	.673			
	RT 4	.748	.700			
Autonomy	AN 1	.807	.744	1.011	22.180	72.212
	AN 2	.759	.778			
	AN 3	.752	.773			
	AN 4	.692	.528			
Internal Locus of Control	LC 1	.865	.749	2.151	71.686	71.686
	LC 2	.815	.664			
	LC 3	.859	.738			
Perceived Start-up Success	SS 1	.815	.665	4.019	66.977	66.977
	SS 2	.716	.513			
	SS 3	.876	.767			
	SS 4	.902	.813			
	SS 5	.858	.737			
	SS 6	.724	.524			

4.1.5 연구 가설 검증

본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Table 4]와 같이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1은  $\beta = 0.439$ ,  $t = 5.740$ ,  $p < 0.001$ 로 통계적 유의미한 값을 보여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Sung-Sik Bahn, Jae-Hyun Park and Sang-Gu Seo(2009)의 연구와 동일하다. 결국 창업자의 진취성은 창업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가정신임이 검증되었다.

가설 2도  $\beta = 0.309$ ,  $t = 3.996$ ,  $p < 0.001$ 로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Young-Jun Cho and Seung-Hee Lee(2012)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서, 창업자의 위험감수성이 창업성공과 매우 밀접한 기업가정신임을 보여 주었다.

가설 3 또한  $\beta = 0.126$ ,  $t = 1.681$ ,  $p < 0.1$ 로 통계적 유의미한 값을 보여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Keum-Soon Shin and Dong-Woo Yang(2007)의 연구와 같다. 즉, 창업자의 자율성은 창업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가정신임을 나타냈다.

가설 4 역시  $\beta = 0.151$ ,  $t = 1.742$ ,  $p < 0.1$ 로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Bong-Sik Bin and

Jung-Ki Park(2002)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따라서 창업자의 내적 통제소재는 창업성공과 매우 밀접한 심리적 특성임을 알 수 있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Variables

Variables	회	t-value	p-value	Tolerance	VIF	Hypothesis
(Constant)		.000	1.000			
Proactiveness	.439	5.740	.000	.851	1.176	Accept.
Risk Taking	.309	3.996	.000	.835	1.198	Accept.
Autonomy	.126	1.681	.095	.885	1.130	Accept.
Locus of Control	.151	1.742	.084	.665	1.504	Accept.

$R^2 = .417$ ,  $F = 20.938$ ,  $Sig. = .000$

5.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창업성공은 무엇보다 창업자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창업자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심리특성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혼재된 결과를 보이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상이한 결과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본 연구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율성과 같은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인 내적 통제소재는 창업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창업성공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율성과 같은 기업가정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자신의 기업가정신을 냉철하게 판단해 보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성공 요인으로 밝혀진 기업가정신을 육성시켜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비롯하여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 보육기관의 경우는 본 연구의 표본인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같이 ‘기업가정신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다 전문성 있는 창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셋째, 창업자 자신도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업자의 내적 통제소재를 강화시켜야만 한다. 내적 통제소재는 근본적으로 자신감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며, 자신감의 원동력은 바로 능력이다. 따라서 창업자 스스로 능력 배양을 위한 학습 노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도 이를 도와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볼 때, 기업가정신이나 심리적 특성은 유·소아기 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가정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창업보육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심리적 특성이라기보다는 행동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율성과 같은 기업가정신을 육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청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야만 한다. 둘째, 자신감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청년창업자들의 내적 통제소재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창업보육기관에 이르기까지 관련 기관 모두 제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

### 5.1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이상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성공의 주관적 성과뿐만 아니라, 객관적 성과도 조명해 볼 수 있는 표본을 추가하여 좀 더 명확한 성과 측정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지원 또는 창업동기 등 잠재변수를 확대하여, 매개효과 또는 조절효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혁신성과 성취욕구와 같은 기업가정신과 심리적 특성 변수를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 표본인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기타 창업보육기관과의 비교 분석도 좀 더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 표본과 같은 남성 위주의 청년창업자와 여성창업자 또는 시니어 창업자와의 비교 분석 또한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향후 연구방향을 토대로 더욱 발전된 후속 연구들을 기대해 본다.

## References

[1] Brush C., "A Resource Perspective on Woman's Entrepreneurship : Research, Relevance and Recognition," *Proceedings of the OECD Conference on Woman*

*Entrepreneur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A Major Force in Innovation and Job Creation*, pp.155-168, 1997.

- [2] Miles R. and Snow C., "Organizational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1978.
- [3] Stewart W. H., Carland A. C. and Carland J. W., "Empirically Defining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Vol.8, No.1, pp.1-18, 1996.
- [4] Morris M. H., "Entrepreneurial Intensity," Westport, Conn : Quorum Books, 1998.
- [5] Wan-Jae Kim and Hwa-Young Chu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and the Performance of Small Firms," *The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Vol.2, No.3, pp.33-60, 2007.
- [6] Bong-Sik Bin and Jung-Ki Park, "An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a Small Business Starting-up,"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24, No.3, pp.135-158. 2002.
- [7] Gartner W. B., "Who is an Entrepreneur?"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12, No.4, pp.111-32, 1988.
- [8] ....., "Where's Entrepreneurship? Finding the Definitive Definition in Marketing and Entrepreneurship : Research Ideas and Opportunities," (Eds.), pp.25-33, Gerald E. Hills, Westport, Conn. : Quorum Books, 1994.
- [9] Naman, J. L. and Slevin D. P., "Entrepreneurship and the Concept of Fit: A Model and Empirical Tes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4, pp.137-153, 1993.  
DOI: <http://dx.doi.org/10.1002/smj.4250140205>
- [10] Spreitzer, G. M.,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Dimensions,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38, No.5, pp.1442-1465. 1995.  
DOI: <http://dx.doi.org/10.2307/256865>
- [11] Chang-Soo Sung, Jin-Soo Kim,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enior Entrepreneurship,"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33, No.3, pp.109-133, 2011.
- [12] Spector P. E., "Development of the Work Locus of Control Scale,"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61, No.4, pp.335-346, 1988.  
DOI: <http://dx.doi.org/10.1111/j.2044-8325.1988.tb00470.x>
- [13] Kropp F., Lindsay N. J. and Shoham A.,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 Business Venture Start-up,"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Vol.14, No.2, pp.102-117, 2008.  
DOI: <http://dx.doi.org/10.1108/13552550810863080>
- [14] Sung-Sik Bahn, Jae-Hyun Park and Sang-Gu Seo,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Support of Business Incubator Center on Corporate Performance," *Productivity Review*, Vol.23, No.2, pp.215-234, 2009.
- [15] Lumpkin, G. T, and Dess, G. G.,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1, No.1, pp.135-38, 1996.  
DOI: <http://dx.doi.org/10.2307/258632>
- [16] Ji-Woo Le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22, No.1, pp.121-146, 2000.
- [17] Baron R., "The Role of Affect i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33, pp.328-340, 2008.  
DOI: <http://dx.doi.org/10.5465/AMR.2008.31193166>
- [18] Shaver K. G. and Scott L. R., "Person, Process, Choice : The Psychology of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6, No.2, pp.45, 1990.
- [19] Jong-Ho Song, "Study on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Youth Start-up : Focused on the Youth Entrepreneurship Program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The Graduate School, Hoseo University, Master's Degree, 2011.
- [20] Schumpeter, J.,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 1934.
- [21] Morris, M. H., and Kuratko, D. F., "Corporate Entrepreneurship," For Worth, T.X. : Harcourt College Publishers, 2002.
- [22] Dae-Yong Chung and Bong-Ho Yoo,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and Market Orientation to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Business Performance," *The Korean Venture Management Review*, Vol.10, No.2, pp.69-93, 2007.
- [23] Miller, D.,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Vol.29, pp.770-791, 1983.  
DOI: <http://dx.doi.org/10.1287/mnsc.29.7.770>
- [24] Hurley R. F. and Hult G. T. M., "Innovation, Market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Learning: An Integration and Empirical Examination," *Journal of Marketing*, Vol.62, pp.42-54, 1998.  
DOI: <http://dx.doi.org/10.2307/125174>
- [25] Narver J. C. and Slater S. F., "The Effect of a Market Orientation on Business Profitability," *Journal of Marketing*, Vol.54, pp.20-35, 1990.  
DOI: <http://dx.doi.org/10.2307/1251757>
- [26] Hult G. T. M., Hurley R. F. and Knight G. A., "Innovativeness: Its Antecedents and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Vol.33, pp.429-438, 2004.  
DOI: <http://dx.doi.org/10.1016/j.indmarman.2003.08.015>
- [27] Nasution H. N., Mavndo F. T. Matanda M. J. and Ndubisi N. O., "Entrepreneurship; It's Relationship with Market Orientation and Learning Orientation and as Antecedents to Innovation and Customer Valu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Vol.40, pp.336-345, 2011.  
DOI: <http://dx.doi.org/10.1016/j.indmarman.2010.08.002>
- [28] Becherer R. C. and Maurer J. G., "The Proactive Personality Disposi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among Small Company Presiden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pp.28-36, 1999.
- [29] Lumpkin, G. T, and Dess, G. G., "Linking Two Dimension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o Firm Performance : The Moderating Role of Environment and Industry Life Cycl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7, pp.429-451, 2001.  
DOI: [http://dx.doi.org/10.1016/S0883-9026\(00\)00048-3](http://dx.doi.org/10.1016/S0883-9026(00)00048-3)
- [30] Kickul, J. and Gundry, L. K., "Prospecting for Strategic Advantage : The Proactive Entrepreneurial Personality and Small Firm Innov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40, No.2, pp.85-97, 2002.  
DOI: <http://dx.doi.org/10.1111/1540-627X.00042>
- [31] Miller, D., "Strategy Making and Structure : Analysis and Implication for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30, No.1, pp.7-32, 1987.  
DOI: <http://dx.doi.org/10.2307/255893>
- [32] Lies P. R., "New Business Venture and the Entrepreneur," Irwin, Homewood, IL., 1974.
- [33] Brockhaus R. H., "Risk Taking Propensity of Entrepreneu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23, No.3, pp.509-520. 1980.  
DOI: <http://dx.doi.org/10.2307/255515>
- [34] Cornwall J. R. and Perlman B., "Original Entrepreneurship," Homewood, IL : Botton-Irvin, 1990.
- [35] Kanter, R. M., "The Change Masters :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in the American Corporation," Simon and Schuster, New York, 1983.

- [36] Keh, H. T., Foo, M. D., and Lim, B. C., "Opportunity Evaluation under Risky Conditions : The Cognitive Process of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27, pp.125-148, 2002.  
DOI: <http://dx.doi.org/10.1111/1540-8520.00003>
- [37] Miller, D. and Friesen, P., "Strategic-marketing and Environment : The Third Link," *Strategic Science*, Vol.29, No.7, pp.770-791, 1982.
- [38] Myer H. H., Walker W. B. and Litwin G. H., "Motive Patterns and Risk Preferences Associated with Entrepreneurship,"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62, pp.570-574, 1961.  
DOI: <http://dx.doi.org/10.1037/h0043698>
- [39] Broehl W. G., "The Village Entrepreneur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78.
- [40] Carland J. W., III Carland J. W., Carland J. A. and Pearce J. W., "Risk Taking Propensity among Entrepreneurs, Small Business Owners, and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Vol.7, No.1, pp.15-23, 1995.
- [41] Webster F. A., *Entrepreneurs and Ventures : An Attempt at Classification and Clarification*, "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 No.1, pp.54-61, 1977.  
DOI: <http://dx.doi.org/10.2307/257605>
- [42] Scheinberg S. and MacMillan I. C., "An 11 Countries Study of Motivations to Start a Busines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pp.669-687, Wellesley, MA : Babson College, 1998.
- [43] Schein E. H., "Career Anchors : Discovering Your Real Values," San Diago, Calif : Pfeiffer and Company, 1990.
- [44] Feldman D. C. and Bolino M. C., "Career Patterns of the Self-employed : Career Motivations and Career Outcom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38, No.3, pp.53-67, 2000.
- [45] Cromie S. and Johns S., "Irish Entrepreneurs : Som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Vol.4, pp.317-324, 1983.
- [46] Brockhaus R. H. and Horwitz, P. S.,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D.Ld Sexton and R. W. Smilor (Eds.),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pp.25-48, Cambridge, MA: Ballinger, 1986.
- [47] Rotter J. B.,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 E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 General and Applied*, Vol.80, No.1, pp.1-20, 1966.  
DOI: <http://dx.doi.org/10.1037/h0092976>
- [48] Sexton D. L. and Bowman N., "Validation of a Personality Index : Comparativ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alysis of Female Entrepreneurs, Managers, and Entrepreneurship Students," In Ronstadt, R., Hornaday, A., Peterson, R., & Vesper, K.H.(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pp.40-51, Wellesley, MA : Bobson College, 1986.
- [49] Stuart R. W. and Abetti P. A., "Start-up Venture : Toward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 No.3, pp.215-230. 1987.  
DOI: [http://dx.doi.org/10.1016/0883-9026\(87\)90010-3](http://dx.doi.org/10.1016/0883-9026(87)90010-3)
- [50] Jang-Woo Lee and Soo-Duck Chang, "Success Factors of High-Tech Ventures : Successful Entrepreneur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23, No.4, pp.121-146, 2001.
- [51] Kaplan R. S. and Norton D. P., "The Balanced Scorecard-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Vol.70, No.1, pp.71-80, 1992.
- [52] Greenley G. E. and Foxall G. R., "External Moderation of Association among Stakeholder Orientation and Company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Vol.15, pp.51-69, 1988.  
DOI: [http://dx.doi.org/10.1016/S0167-8116\(97\)00018-9](http://dx.doi.org/10.1016/S0167-8116(97)00018-9)
- [53] Schwartz R. G., Teach R. D. and Birch N. J., "A Longitudinal Study of Entrepreneurial Firm Opportunity Recognition and Product Management Strategies : Implications by Firm Typ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Research*, Vol.11, No.4, pp.315-329. 2005.  
DOI: <http://dx.doi.org/10.1108/13552550510603315>
- [54] Crant M. J.,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nd Objective Job Performance among Real Estate Ag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0, No.4, pp.532-537, 1995.  
DOI: <http://dx.doi.org/10.1037/0021-9010.80.4.532>
- [55] Kirkpatrick S. A. and Locke E. A., "Leadership: Do Traits Matter?,"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Vol.5, No.2, pp.48-60, 1991.
- [56] Yun-Jae Lee, "The Effect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Business Performance in Business Incubator Companies," The Graduate School, Hoseo University, Ph. D., 2006.
- [57] Smith N. R. and Miner J. B., "Type of Entrepreneur, Type of Firm, and Managerial Motivation :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Life Cycle Theo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4,

pp.325-340, 1983.

DOI: <http://dx.doi.org/10.1002/smj.4250040404>

- [58] Dae-Seob Park and Chung-Sub Shin, "A Study of the Influence of the Food Service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to the Creation Success and Invitation," *Journal of the Korean Service Management Society*, Vol.7, No.1, pp.201-222, 2006.
- [59] Young-Jun Cho and Seung-Hee Lee,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Performanc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10, No.5, pp.143-154, 2012.
- [60] Utsch A., Rauch A., Rothfuss R. and Frese M., "Who becomes a Small Scale Entrepreneur in a Post-socialistic Environment: On the Differences between Entrepreneurs and Managers in East Germany,"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37, No.3, pp.31-42, 1999.
- [61] Keum-Soon Shin and Dong-Woo Yang, "The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Service Orientation and Venture's Success in Restaurant Busines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20, No.6, pp.2639-2666, 2007.

유 봉 호(Bong-Ho Yoo)

[정회원]



- 1999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 2008년 8월 :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교육조교수, 기술경영·공학경제 등 공과대학생을 위한 경영·경제관련 과목 담당

<관심분야>

기업가정신, 창업, 기술경영, 리더십, 마케팅

김 수 현(Soo-Hyun Kim)

[정회원]



- 2000년 2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 2010년 8월 : 홍익대학교 경영학 박사
- 1983년 : 경영지도사
- 2011년 1월 ~ 현재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수

<관심분야>

경영컨설팅, 기술창업, 중소기업투자, 기술가치